

무대의상의 한국적 디자인 연구 -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중심으로 -

임 경 미 · 송 미 령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디자인 전공

공연예술이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고 발전되어 온 예술의 형태이며 인간의 삶을 다룬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무대의상은 이러한 공연예술의 한 부분으로 극중의 인물을 재창조하고 극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과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극은 국내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작품으로 고전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더해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어 공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국적인 정서를 가미하고 무대요소의 방향을 한국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셰익스피어의 극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작품 '맥베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 작품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양면성'을 주제로 하여, '탐욕'이라는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 '맥베드'는 다른 작품에 비해 공연사례가 적은 편이며, 특히 한국적으로 해석되어진 예가 없어 본 논문의 주제 작품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전통 의상의 디자인의 요소들과 특성들을 고려하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여 '맥베드'의 중요 배역을 선정, 의상을 디자인하여 실물로 제작하였다.

각 등장인물과 장면별 무대의상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맥베드 장군의 의상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장군이면서도 마녀의 예언에 심리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권력에 대한 야욕을 품게 되는 인물로 어깨나 하의에 장군의 감옷 느낌을 주기 위해 단순화된 디자인을 하고 불안정한 그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선을 많이 사용하고 금색을 포인트로 왕위에 대한 욕심을 표현하였다.

맥베드 왕의 의상은 결국 왕을 시해하고 마녀의 예언대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의 의상으로 보라색의 한국적인 무늬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왕으로써의 위엄과 화려함을 표현하였고 어깨에 한국적인 박쥐무늬를 모티브로 한 장식을 더함으로써 날카롭고 불안정한 이미지로 그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맥베드 부인의 의상은 맥베드보다 더 대담하게 왕의 시해를 부추긴 인물로 그녀의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맥베드 못지 않았음을 삼국 시대의 상(裳)과 유(襦)를 기본으로 하여 적의의 대를 더해 왕비가 된 그녀의 화려함으로 표현하였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치마를 주름과 이중으로 된 스커트에 금박의 단으로 변화를 주었다.

덩컨 왕의 의상은 선정을 베푼던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의 성격을 금색과 황토색을 주제로

따뜻하고 은화하면서도 왕으로써의 위엄을 표현하였고 어깨의 장식도 맥베드에 비해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맥베드의 성격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뱅크우 장군의 의상을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찬 맥베드에 반하여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강직함을 맥베드의 카키색과 금색에 대비되도록 군청색과 은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마녀의 의상은 초현실적인 인물로서 한국의 무당과 접목시켜 색동의 느낌을 무채색으로 표현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고 끈의 사용으로 성황당의 느낌을 나타내고, 과장된 바지와 가면으로 초현실적인 캐릭터임을 표현하였다.

인물의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의 원작을 한국적인 이미지로 해석하여 올려진 예가 많으며 이런 극들이 오히려 해외 공연으로 서양의 극을 동양적으로 해석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디자인 적인 면에서 한국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하여 극적인 요소를 살리고 적절히 서양적인 이미지를 접목시켜 느낌은 정확하게 한국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동양적이라는 느낌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곡선과 직선, 사선의 디자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관객에게 인물의 성격과 내적인 심리상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셋째, 색감에 있어서 한국적인 화려한 색감의 사용과 전형적인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색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에 따른 색의 변화도 인물의 상황 변화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차분한 카키색의 맥베드 장군이 화려한 보라색과 금색의 의상의 왕으로 변화하게 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의상으로써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넷째, 직물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질감과 현대적인 질감을 적절히 섞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적인 질감들을 섞어 전통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문양을 화려한 질감의 가하학적인 무늬로 대체하여 사용하였고, 전통의 금박 스란단도 주름잡은 스커트에 도입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였다.

외국의 번역극이 원작 그대로 올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적인 색채를 입혀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무대미술 형태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극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세계인의 공감을 유도하고 시각적으로는 한국적인 미감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극이 많이 시도되기를 바란다.